

# 학문분류표의 재설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Knowledge Classification Scheme

정연경(Yeon-Kyoung Chung)\*\*

### 목 차

1 서 론	3.1 원칙
1.1 연구목적	3.2 기본 요건
1.2 연구방법	3.3 개발 단계
2 학문분류표의 특성	4 학문분류표의 재설정
2.1 정의 및 필요성	4.1 본표의 구성체계와 내용
2.2 문헌분류표와의 상이성	4.2 보조표의 종류와 내용
2.3 문헌분류표와의 연관성	4.3 상관색인
2.4 연구분류표로의 개발	4.4 사용법
2.5 활용가능성	4.5 적합성 평가 및 적용
3 학문분류표의 설계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지식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및 교육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표의 설계를 통해 학문분류표의 재설정을 모색하였다.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의 전공 명칭, 교과과정, 국내 교수진의 세부 전공 분야의 분석과 다양한 학문분류표의 항목 비교를 바탕으로 분류표를 설계하였다. 설계한 분류표를 다양한 문헌분류표와 대조하고 각 주제별 전문위원들의 검토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본표, 보조표, 상관색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학문분류표를 최종적으로 재설정하였다. 이 분류표를 바탕으로 1998년 학술연구조성비 연구과제 목록집에 실린 연구과제를 실제로 분류해 보았으며, 보다 효과적인 학술 정보 조직과 학제간 연구를 도모할 수 있는 실용적 학문분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reorganize the knowledge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research fields and majors in education by designing a new classification schedule. Content analysis of the majors and curriculums in the universities and major areas of the academic professors in Korea, and the comparison with the various headings in several classification systems for research fields were carried out. Based upon the comparison with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s and reviews and opinions of subject specialists in major disciplines, finally, a knowledge classification system composed of three parts - schedules, tables and a relative index - was presented. The proposed classification scheme was tested for classifying the research projects listed in the 1998 catalog of the academic research fund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Also, several ways for developing a more useful knowledge classification scheme to organize disciplinary information effectively and to encourage interdisciplinary research were suggested.

키워드: 학문분류표, 문헌분류표, 연구분류표, 학술 정보 조직, 분류표 설계, 연구 지원, 지식분류, 학술진흥재단

\* 이 논문은 1998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 전공 부교수

■ 논문 접수일 : 2000년 5월 16일

## 1 서론

최근 국내외 교육 및 연구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정보화는 세계를 하나로 통하게 하고 무한 경쟁과 개방화 물결 속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연구와 교육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학계의 무한한 연구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의 근원인 연구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계 전체의 연구활성화가 국가 경쟁력 제고와 우리 민족 재도약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면서, 학문은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가 되는 동시에 학제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통합화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교육정보화를 바탕으로 인터넷 강좌와 가상대학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획일적이었던 수많은 대학들이 특성화, 전문화, 세계화를 내걸고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학부제와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교육 개혁은 새로운 연구 환경 조성이란 기본 여건을 필요로 한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한데 실제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분야별 영역이 확대되고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문 발전의 추세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분류표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 1.1 연구목적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문분류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분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주제 분야의 문헌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문헌분류표 적용 시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다만 자연과학분야에서는 학문적인 분류에 관한 연구가 학문분류명칭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므로 전체 지식 체계인 학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분류표의 재설정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없다기보다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기피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문분류를 바탕으로 한 문헌분류표는 학문의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연구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문헌분류표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분류체계의 분류항목들이 학문의 학술적, 기술적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문헌분류와 정보검색에 있어서 학문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문헌분류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학술 연구 지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국내 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각 학문 분야가 서로 적합하지 않게 종속되거나 구분되어 있다. 둘째, 필요할 때마다 세부 분야 항목명을 추가하여 세부 분야 항목간의 관계 설정 부재와 부적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학문분류 항목의 상세성과 최신성, 항목간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넷째, 학술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지원하는데 세부 전공 분야 및 연계 전공 분야

기재가 어렵다. 다섯째, 연구 지원 평가를 위한 최적 평가자 선정이 어렵다. 여섯째, 부적합한 평가자의 평가로 인한 새로운 학문 발전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일곱째, 다학문적 연구의 장려를 위한 학제간 연구 분야의 설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여덟째, 문헌분류표의 개정에 기초가 되는 과학적, 교육적, 이론적 지식체계로 사용하기에 미흡하다. 아홉째, 학문의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분류표로 비효율적 연구 관련 정보 조직이 이루어지고, 연구자들의 연구계획 및 연구 관련 정보 조사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학문분야 전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학문분류표를 재설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분야에 걸쳐 능통한 연구자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문분류의 근거를 제공하는 다양한 문헌을 토대로 학문의 분류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주제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유용한 학문분류표의 재설정이 가능하다. 균형있는 전개와 명확한 구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항목간의 수평, 수직적 관계가 유기적으로 설정된 학문분류표는 문헌분류표의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고 국내에서 사용하게 될 표준학문코드 설정에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술 연구 지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표를 문헌분류표의 바탕, 더 나아가 교육 및 학술 정보의 틀을 이룰 수 있는 학문분류표로 재설정 함으로써 학문간의 구분과 영역을 확실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술 연구 정보 조직과 학제간 연구를 도모하고자 한다. 학문분류표 재설정의 범위는 학문의 전 영역으로 하되 기존의 학술진흥재단의 기본적인 틀을 완

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학문발전의 추세를 반영시켜 새로운 항목을 배정하고 적절히 못한 항목은 대치하였으며 세목은 가능한 세분하도록 하였다.

## 1.2 연구방법

문헌분류표가 학문분류를 토대로 만들어져야 하나 학문의 체계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문헌분류표의 개정만 계속되어 왔으므로 문헌분류표를 바탕으로 학문분류표를 재설정하는 방법은 합당치 못하다. 그러므로 지식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큰 배움터이며 학문의 세분화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된 대학교와 대학원을 중심으로 학문 영역을 1차로 설정하였다. 국내 156개 4년제 대학교의 7,522개 학과와 699개 대학원에 설치된 5,727개 석사과정, 1,900개의 박사과정 전공 분야를 『교육통계연보』(1998)와 대학 및 대학원 요람을 통해 이들의 소속, 명칭, 교육내용과 교수진의 세부 전공 등을 내용 분석하였다. 『사립대학교원명부』(1996)와 『국공립 대학 교원 명부』(1996)에 실린 교수진 40,345명의 세부 전공 분야의 내용까지 추가로 분석하였고 학문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전공 학회의 구성도 『학회총람』(1999)을 통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미국과 일본을 대표적인 서양과 동양의 고등교육국가로 보고 그 곳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학문 분야를 유학 및 진학 자료인 *School Basic Survey*(1997), *Peterson'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 S. A.*(1997), *Japanese Universities: Graduate Programs for Foreign Students 1995-1996*(1996)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공 안내서인

『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1993)도 참고하여 학과 및 전공 분야별 카드를 작성하였고, 학과 및 전공분야 명칭을 분류항목으로 선정하기 위해 학문분류표의 분류코드 항목과 비교 대조한 후, 적절한 임시 코드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과 및 전공 분야별 카드를 바탕으로 학문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었다. 그 다음으로 각 학문 명칭의 위치를 대표적인 문헌분류표인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th ed.*(1996), 『한국 십진분류표』(1996), 학문분류표인 한국과학재단 연구분야 코드(1999),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Fields of Science*(1999),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Primary Field of Science Codes*(1999),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Fields of Science*(1999), Australian Standard Research Classification(1999), Academy of Finland의 *Research Classification*(1999)에서 찾아보고 상위, 하위, 동위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술진흥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문분류코드의 기본 방식인 알파벳과 숫자의 혼합방식은 그대로 적용하고 커다란 학문 영역의 구분은 수용하면서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전체 분류체계의 계층이 표현될 수 있고 새로운 주제의 기호 부여시 기존 기호체계 내에서 표현이 가능하도록 신축성을 주었다. 그 결과, 어문학이 인문학의 하위 주제로 들어가지 않고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기존의 학문분류표를 그대로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어문학 분야가 각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전공 분야로 연구자가 매우 많고 영역이 매우 큰 부분이라는 점에서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가능한 연구주제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역 보조표와 시대 보조표를 새롭게 적용하여 해당하는 연구주제를 분류코드를 합성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문의 경계가 갈수록 불분명해지고 복잡적이며 학제적인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우선 문헌상에 나타난 학문의 구분과 전체 학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도를 바탕으로 본표와 보조표, 상관색인으로 이루어진 학문분류표를 개발한 후, 현실적이고 적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학문분류표의 적합성 평가를 총 96개 분야의 주제별 전문가인 교수 및 연구원들에게 받았다. 전문가들에게는 해당 학문분류표를 주고 과거나 현재에 연구하고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적합한 학문분류코드를 모두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분류항목의 적절성과 문제점을 해당 학문분류표에 모두 표시하고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제별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학문분류표를 재설정 하였으며, 이 학문분류표를 가지고 1998년도 학술연구구성비 연구과제 목록집에 실린 연구과제를 연구과제명과 전공을 바탕으로 시험 적용해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 2 학문분류표의 특성

### 2.1 정의 및 필요성

학문이란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 무엇 때문에 배우고 무엇을 배우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이란 연구하고 교육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정한 지식의 체계적인 집합으로 학문의 실체는 오직 올바른 교육 활동을 통해서만 확인되고 검증될 수 있다(장상호 1997).

'discipline(학문)'은 라틴어 'discere(배우다)'에서 파생한 말로 'discipulus, pupil(학생)'의 배움과 관련된 훈련 또는 규율이라는 뜻과 아울러 학생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육의 한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교과 또는 학문 분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문은 무엇을 알기 위해 하는 것으로 대상 없는 학문이란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대상의 종류와 존재 양식, 학문의 목적이나 연구방법, 학문의 실용성에 따른 학문분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식의 조직체를 학문의 연구과정에서 얻은 개념과 사상의 다양한 분석으로 특성에 따라 나누고 종합 배열하여 체계화하는 행위를 학문분류라고 할 수 있다(정연경 1999).

학문의 역사에서 그 시원을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인간의 지식을 체계화한 것을 학문이라고 할 때, 인간 사고의 산물인 지식이 체계적으로 조직된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문분류의 역사는 인간 사유의 조직화를 시도하려는 역사로 수천년 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사상의 분류 즉, 지식의 분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철학자들의 분류에 대한 접근 방법은 상호관련성 정도에 따라 학문을 분류하고 유용한 체계로 정리하는 것이었다(배영환 1986).

무엇이 학문의 범위에 속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기준의 원리뿐 아니라 현실적인 편의와 수요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시대와 지역, 분야에 따라 학문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있어 왔으며, 학문 이해와 현실 이해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밀접히 연관되어 전개되어 왔다. 그러한 학문을 이해하는 차이는 당연히 학문의 체계화에도 차이를 가져오므로 학문 세계에 질서를 놓

는 학문분류표는 다양하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학문이 학제적이 될수록,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변천할수록, 전통적인 분류는 현존의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만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문의 체계를 논의하고 학문분류표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해로부터 하나의 의미 있는 종합을 이루고,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학문의 서로 다른 이해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본질적 성격상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구조와 이해에 대한 세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문의 형성 과정에 대한 검토 작업은 학문의 개념 체계와 기본 구조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며 이런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서 학문의 의미 있는 종합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소광희 외 1994).

## 2.2 문헌분류표와의 상이성

문헌이란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문헌은 학문영역의 연구 성과를 수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분류란 연구 결과물인 자료를 도서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동일 주제나 유사한 주제와 형식에 따라 정리 배열하는 행위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문헌분류표는 예상 가능한 모든 주제를 구조화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개념을 범주화하고 체계화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문헌분류는 그 문헌이 담고 있는 정보의 내용, 즉 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헌분류는 필연적으로 학문의

분류에 바탕을 두게 된다. 그러나 문헌분류는 도서관에 소장된 문헌이나 자료의 실제적인 분류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목적을 갖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분류이론의 개발이 필요하였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많은 분류이론들이 제시되었다. 문헌분류는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일차적으로 내용에 따라 주제접근을 한 후 이차적으로 형식구분을 한다. 출처나 행정 기능, 연대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다(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1998).

이에 비해 학문분류는 분류의 기준이나 목적,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헌분류와 차이점이 있으며 분류되는 결과에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학문분류는 분류의 대상이 학문 자체이기 때문에 추상성이 강하고 학문의 논리성을 분류기준으로 삼아 체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비해 문헌분류는 구체적인 대상물이 있고 특정 원리나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문헌분류표가 많이 나와 있으며 이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분류대상이 학문의 결과인 문헌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용성을 강조하고 문헌의 주제와 형식 등을 분류기준으로 삼아 검색 및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물 또는 개념의 상호간 관계를 발견하려는 수단이 된 학문분류는 학문적 이론이나 성격을 제시하여 문헌분류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근대 문헌분류표의 작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학문분류와 문헌분류의 적절한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유효한 자료분류가 행해질 수 있으며 학문분류의 중요성은 문헌분류의 중요성에 앞선다고 할 수 있다(정연경 1999).

## 2.3 문헌분류표와의 연관성

기본적으로 분류표는 관련 주제 지식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론상 학문분류와 문헌분류는 본질적으로 상이하지만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문헌이란 바로 각 학문 영역의 성과이므로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자료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각 학문 영역의 지식구조를 반영한 분류체계가 요청된다(Bahattacharya and Ranganathan 1974). 이처럼 문헌분류는 자료의 효과적 이용이라는 실용성을 전제로 이들 문헌을 주제 영역의 지식구조에 따라 조직화, 체계화하는 과정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헌분류에서 말하는 체계화나 조직화는 바로 학문분류를 전제로 한다.

문헌분류와 학문분류의 연계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문을 분류하는 사람들과 문헌분류학자들 모두가 지식의 영역을 다루었다는 것이다(Miksa 1994). 그래서 문헌분류는 논리학상의 분류개념과 일치하고 학문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 분류이론과 축을 같이 한다. 학문분류는 문헌분류를 포섭하여 큰 영향을 주었으며 대부분의 문헌분류표가 학문분류의 바탕 위에서 창안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므로 학문분류표는 문헌분류표의 근거가 되고 학문의 틀, 더 나아가 연구의 소재를 찾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문헌분류가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지식체계에 따를 때 그 효용성이 증가되며 그 원리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Satija 1998). 결국 학문적 이론을 충족시키는 분류항목들로 구성되는 학문분류표를 제대로 설정해야만 문헌분류표가 제대로 짜여지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보조직을 이룰 수 있다(정연경 1999).

## 2.4 연구분류표로의 개발

근세까지 학문분류표가 실용적 의미보다는 철학적 의미와 주요 학문명칭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졌다면 현대의 학문분류표는 각 나라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개발 지원과 측정 및 분석에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 분야를 바탕으로 고안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분류표는 연구 개발 통계 자료의 편찬뿐만 아니라 국가의 연구 자료 역할을 하는 표준 연구 코드로 사용되며, 더 나아가 고등교육과정과 학문 단위, 교수 활동에 관련된 자료들을 범주화할 수 있게 해 준다(Higher Education Research 1999).

국가별로 개발된 연구분류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재단(NSERC: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의 과학기술분류체계는 의학을 제외한 이공학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연구분야와 적용분야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산학연계시 산업코드를 기재하고 2가지 세분야를 1순위, 2순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과학분야 코드표(Fields of ScienceCodes)는 미국의 과학재단에서 만든 과학에 중점을 둔 분야 코드표로서 전체가 3자리로 구성되어있다. 대분류가 수학과 물리학을 시작으로 공학, 컴퓨터학과 정보과학 및 정보공학, 생물과학, 행동과학과 사회과학, 지구과학으로 크게 6분야로 나누고 있으며 마지막에 기타 학문을 넣었다(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99).

핀란드 학술원(Academy of Finland)의 연구

분야 분류표(Field-of-Research Classification)는 핀란드의 교육부 소속 연구 재단인 학술원에서 사용하는 연구분류표로 모든 분야의 연구를 포괄하며 최고 수준의 기초 연구를 증진하고 핀란드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연구분야 분류표는 44개 연구분야 코드로 이루어졌으며 4개의 번호로 구성된다(Academy of Finland 1999).

호주 표준연구분류표(Australian Standard Research Classification)는 호주에서 착수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측정과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한 3개의 분류표로 구성된다. 이 분류표는 호주의 다양한 학·협회, 연구이사회, 위원회, 연구기관, 기술인 모임 등의 협력 하에 호주 통계청이 만들었다. 연구 개발 통계 자료의 편찬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기초 자료 역할을 하는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준연구분류표는 활동 종류(TOA: Types of Activity)에 관한 분류표, 연구분야 및 교과 과정과 학문분야(RFCD: Research Fields, Courses and Disciplines)에 관한 분류표, 사회경제목적코드(SEO: Socio-economic Objective)라는 3개의 분류표로 구성된다. TOA는 연구 노력의 유형에 따라 순수 기초 연구, 전략적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실험 개발로 나누어 연구 개발 활동을 범주화한다. RFCD는 착수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따라 연구 개발 활동과 고등 교육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범주화하고 분류한다. SEO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연구 개발의 목적으로 연구 개발을 범주화한다. 연구 개발의 주요 목적을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 경제, 사회, 기술, 과학 영역으로 나누어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한

과정, 산물, 보건, 교육 및 다른 사회 환경적 측면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 표준연구분류표는 3가지 다른 유형의 분류표를 제공해 줌으로써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끔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해 주며 이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해도 특별한 목적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1999).

국내 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표는 재단의 학술연구조성사업으로 효과적인 학문별 연구 지원을 위한 분류표이다. 여기서 학문분류란 엄격한 의미에서 역사적이나 철학적 측면에서의 학문분류보다는 연구 행정을 위한 연구분야 코드라는 것이 더 적합하다. 대학의 학과 분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학문이 크게 어문학분야, 인문과학분야, 사회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공학분야, 의약학분야, 농학분야, 수해양분야, 예체능분야로 나뉘어진다. 학과 및 교과목 중심의 분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세분야의 중복이 많으며 나열형 3계층으로 대분야 9개, 중분야 147개, 소분야 1,207개로 이루어진다. 대분야는 알파벳 A, B, C, D, E, F, G, H, I로 각 분야를 구분해주고 000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다. 중분야는 대분야의 알파벳과 4자리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는데 앞의 두자리가 중분야를 구분해준다. 소분야는 나머지 두자리로 구분하며 기타 소분야는 90이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Korea Research Foundation 1999).

한국과학재단의 과학기술 분야 분류표는 한국과학재단의 기초과학연구지원 사업을 위한 분야 분류표이다. 이 분류표는 연구성격 중심으로 분류하면서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연구대상을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연구대상별로 연구비 투입 현황과 연구인력 현황의 파악으로 학술활동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연구분야를 중요성에 따라 3순위까지 3개를 기재할 수 있게 하면서 연구 후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도 3순위까지 3개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즉, 연구의 내용을 표시하는 연구분야(research field)와 그 연구가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적용분야(application field)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 분야 코드의 부여는 연구의 내용이 동일한 연구 주제에서도 그 적용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 기술의 연구분야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복합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70개의 중분야, 437개가 넘는 소분야로 나누었다. 연구 분야 코드는 5자리 숫자로 이루어졌으며, 적용분야의 코드는 알파벳 A 혹은 B와 4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졌다. 연구분야 코드 중 10000-30000이 이·공학 분야이고 70000-90000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이며 50000은 이·공학과 인문·사회·예체능의 복합분야이다. 40000과 60000은 미래의 사용을 위해 공기호로 남겨두었다. 적용분야 코드 중 A로 시작되는 코드는 보편적 또는 추상적 가치의 개념이 강조된 분야로서 지식의 진보, 환경, 공공복지, 국방으로 구분되며, B로 시작되는 코드는 산업을 분류한 것으로서 통계청에서 정한 국가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에 따르고 있다(Korean Science Foundation 1999).

## 2.5 활용가능성

학문분류표의 활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지식과 이론적인 체계와 순서를 갖춘 학문분류표는 문헌분류표의 체계를 이루는 기초를 제공하고 모든 학술 정보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그 바탕이 되는 학문분류표의 지속적인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보다 더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현대 학문의 세분화와 그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학문분류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한 국가의 표준 연구 지원 코드로 발전시켜 국가 전체의 연구 개발 활동과 고등 교육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술 활동을 범주화하고 효율적인 학술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학술 연구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국가적 정보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넷째, 학문분류를 바탕으로 연구분야의 학술연구자 정보를 찾는데 교육부, 대학교협, 과학재단, 기타 연구지원 관리기관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특정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나 연구결과를 쉽게 찾아 연구 계획서에 대한 최적 평가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끝으로 학문주제별 접근이 용이한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디렉토리 설계에서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 3 학문분류표의 설계

모든 분류표의 구조나 형식, 수록범위는 다양하므로 그러한 분류표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다. 특히 학문분류표는 추상적인 학문을 구분하고 배열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계 원칙과 조건을 바탕으로 3단계를 거쳐 작성하였다.

#### 3.1 원칙

분류란 분류체계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인 생

산적인 과학이면서 이러한 체계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활동이고 주제의 세계를 조직화하는 행동이므로 실용적인 과학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문은 연구하는 목적에 관한 일반적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제와 분류체계의 세계는 이론적인 과학과 함께 해야 한다 (Svenonius 1992). 그러므로 분류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첫째, 각 학문의 특성을 바탕으로 실용성을 갖도록 하였다. 둘째, 일관성 있는 구분의 원리에 기저를 두고 가능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였다. 셋째, 각 단계에서 구분지의 차이를 두고 상호배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구분의 각 단계는 순서를 정확하게 따르고 점진적으로 상세히 주제를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분류시 연구분야의 부정확성을 허용하게 되면 분류 방법이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반대로 연구 분야의 부정확성을 최대한 방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분류방법이 번거로워질 수 있는데, 이 분류표에서는 연구 분야의 정확성에 더 비중을 두었다.

#### 3.2 기본 요건

학문분류표의 설계시 기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하였다. 첫째, 학문의 분화, 발전에 따른 분류체계의 변화에 순응하는 혁신성과 최신성을 겸비하도록 하였다. 둘째, 학문에 근거한 분류 항목의 전개가 논리적이고 계층적이도록 하였다. 셋째, 학문 구분 원리의 일관성과 하위 집합의 상호배타성, 피분류체의 포괄성, 구분의 단계성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모든 주제를 분류할 수 있는 망라성, 과거 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소급성, 새로운 학문 분야의 삽입이 용이한 신축성, 그

리고 특별항목의 세부 전개를 위한 수정성을 갖추는 동시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개하였다. 다섯째, 학문분류 기호는 단순하고 간결하며 기억하기 쉽도록 가능한 동일한 기호에 같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 3.3 개발 단계

분류 원칙과 기본 요건을 바탕으로 학문의 구분 원리와 일정한 표시 방식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배열한 학문분류표를 개발하려면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김 태수(2000)는 분류표의 개발에는 3단계가 있는데 이는 주제를 개념으로 분석하는 개념단계, 이를 개개의 용어로 구조화하는 용어단계, 이를 고유한 기호로 배정하는 기호단계라고 하였다.

#### 3.3.1 개념단계

학문은 인식되는 상이한 패턴을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면서 구분하게 된다(김태수 2000). 그러므로 여기서는 학문을 소수의 영역으로 나누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반복하였다. 구분 단계마다 적용되는 특성을 선정하고 특성의 적용순서에 따라 학문을 조직하였다. 학문분류 구분의 특성은 실증적이고 유용하며 학문분류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학문분류에서의 범주는 가능한 상호배타적이고 한번에 하나의 특성만을 적용하여 하위범주로 전개하였다. 가능한 관련 학문영역의 합의와 대다수 연구자들의 접근방식을 반영하도록 하고 분류표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순서를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학문의 역동성으로 인해 특정 수준의 구성요소 전부를 완전하게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문

의 구조에 포함되는 동위 수준의 모든 개념을 포용하는 대신 분류표에 새로운 개념이 출현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하였다. 동위류는 직선형식으로 배열하였으며 학문적 관점과 전통적인 규범으로 그 순서를 정하였다. 시대 보조표의 경우는 시대순으로 배열하였고 지역 보조표의 경우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순서를 결정하였다. 학문분류표의 주제나 구분지는 계층관계를 보여주고 상위주제에서 하위 주제로 갈수록 특성을 증가시켰으며 유사한 주제나 개념이 상이한 계열이 출현할 때는 대등하게 취급하도록 하였다. 일관된 순서를 위해 공통구분지와 같은 동일한 항목을 사용하였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제는 가능한 인접 배치하여 주제를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 3.3.2 용어단계

학문분류표 상의 용어는 분류표의 연구 주제를 나타내는 언어 체계이다(김태수 2000). 용어단계에서 주제는 분명한 명사로 제시하였으며 동의어도 포함하였다. 용어의 의미는 상위 계층의 관점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동음이의어의 출현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특정 용어가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여러 주제영역에서 다르게 출현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계층구조를 통해 파악하도록 하였다. 학문분류표의 용어는 주제 전문가들이 통용하는 용어로 하였고 기존의 용어를 새로이 통용되는 용어로 전환하기 위해 분류표를 정기적으로 개정한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용어 중에서 기술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한정어를 사용하고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 3.3.3 기호단계

학문분류에서 기호는 연구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면서 용어의 대체 수단이다(김태수 2000). 그러므로 특성에 기초하여 유용하고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배열하기 위해 숫자, 문자, 기타 부호들을 사용하였다. 분류기호는 간결하면서도 주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세하게 표현하며 계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학술진흥재단의 기존 학문분류표에 적용된 범주를 수용하였고, 없는 항목은 새롭게 추가 배열하였으며 조기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새로운 주제를 기존의 주제에 수용하기 위해 특정기호를 여백으로 두었고, 새로운 주제의 출현을 미리 예상하여 전체류와 그 하위류간의 간격을 남겨두었다. 이 외에도 학문분류표의 구조와 관련하여 안정성이 계속 유지되어 분류체계의 변화가 있더라도 기호체계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주제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특정 분야의 구조를 완전히 변경하거나 분류표의 유용성을 위해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겼으며 가급적 연구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 4 학문분류표의 재설정

### 4.1 본표의 구성체계와 내용

학문분류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분류 명사와 이를 상징하는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혼합기호가 수록된 본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학문을 크게 농림수

축산학(A), 인문과학(H), 어문학(L), 의약학(M), 자연과학(N), 예술학(R), 사회과학(S), 공학(T)이란 8개 영역으로 나누고 분야별 문자코드를 주었다. 이 8개의 영역을 또 다시 해당 학문으로 세분하였는데 총 96개 분야로 공학(T)은 19개 분야, 농림수축산학(A)은 4개 분야, 사회과학(S)은 19개 분야, 어문학(L)은 2개 분야, 예술(R)은 6개 분야, 인문학(H)은 5개 분야로 의약학(M)은 29개 분야, 자연과학(N)은 12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의약학 분야가 제일 많이 세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의학에서의 각 전문분야를 상세하게 나눈 결과이다.

각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해당 학문의 영문 명칭의 첫 문자를 따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기성을 살렸다. 동일한 학문 영역 안에서 첫 문자가 같게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자에서 가져와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농림수축산학의 경우, 대표 영역 코드인 A 다음에 임학은 FORESTRY의 F를 부가하여 AF로, 수산학은 FISHERY의 FI를 부가하여 AFI로 분야코드를 주었다. 그러나 동일한 학문 영역 안에서 3개 이상의 학문명칭의 첫문자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학문분류표 분야별 코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렇게 분야코드로 대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는 4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하위 분야를 중분류와 소분류로 세분하였다. 소분류는 중분류의 하위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문의 일반 공통 주제에 해당하는 번호까지 포함하였다. <표 2>는 본표 중에서 L 어문학 분야 아래 LA 어학 분야 분류표이다.

〈표 1〉 알파벳순 학문분야별 문자 코드

영역코드	학문영역명	분야코드	학문분야명	영역코드	학문영역명	분야코드	학문분야명
A	농림수축산학	AA	축산학	M	의약학	MBA	병리학
		AG	농학			MBH	예방의학
		AF	임학			MBI	면역학
		AFI	수산학			MBM	약리학
						MBR	기생충학
H	인문과학					MBS	생리학
						MCA	마취과학
						MCD	피부과학
						MCE	응급의학
						MCF	가정의학
						MCH	재활의학
						MCI	내과학
						MCN	신경과학
						MCO	안과학
						MCP	소아과학
						MCR	비뇨기학
						MCRA	방사선과학
						MCS	일반외과학
						MCSN	신경외과학
						MCSO	정형외과학
L	어문학					MCSP	성형외과학
						MCST	흉부외과학
						MCT	이비인후과학
						MCU	산부인과학
						MCY	정신과학
						MK	한의학
						MNS	간호학
		MPY	약학				
		MT	치의학				

〈표 1〉 알파벳순 학문분야별 문자 코드(계속)

영역코드	학문영역명	분야코드	학문분야명	영역코드	학문영역명	분야코드	학문분야명
N	자연과학	NA	천문학	T	공학		
		NAT	대기과학				
		MB	생물학			TAR	항공우주공학
		NBT	식물학			TBE	건축공학
		NC	화학			TC	생물공학
		NE	생태학			TCH	전자계산학
		NEN	환경학			TCI	화학공학
		NES	지구과학			TCM	토목공학
		NG	자연지리학			TE	제어계측공학
		NGY	지질학			TEL	전기공학
		NH	가정학			TEN	환경공학
		NM	수학			TI	산업공학
		NO	해양학			TM	기계공학
		NP	물리학			TMA	재료공학
		NS	통계학			TME	의공학
NZ	동물학	TOE	해양공학				
R	예술학	RC	복식	TR	자원공학		
		RD	무용	TS	조선공학		
		RF	영화	TT	섬유공학		
		RG	미술	TN	원자력공학		
		RM	음악				
		RP	체육				
		RPL	연극				
S	사회과학	SAC	회계학	S	사회과학		
		SAD	지역개발학			SPA	행정학
		SB	경영학			SPP	정책학
		SE	경제학			SPC	심리학
		SED	교육학			SR	지역학
		SF	여성학			SS	사회학
		SG	지리학			ST	무역학
		SJ	신문방송학			STM	관광학
		SL	법학			SSW	사회복지학
		SLI	문헌정보학				
		SP	정치학				

〈표 2〉 어학 분야(LA) 분류표

코드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LA 0000	※어학		
LA 0001			음성
LA 0002			음운
LA 0003			형태
LA 0004			통사
LA 0005			의미
LA 0006			화용
LA 0007			언어교수 언어교육, 언어습득, 한국어교육, 외국어교육, 각국어교육 등을 포함한다.
LA 0008			언어정보
LA 0009			어사/언어사 언어사회사를 포함한다.
LA 0011			계통
LA 0012			어휘/문법 어형, 구문 등을 포함한다.
LA 0013			문자/기호 고문자, 지화문자, 한자 등을 포함한다.
LA 0014			텍스트언어
LA 0015			방언/속어/외래어
LA 0016			사전
LA 0017			번역 기계번역을 포함한다.
LA 0018			통역
LA 0019			언어비교/언어평가/언어통계 어학시험, 토플, TOEFL, 토익, TOEIC, 텡스, TEPS 등을 포함한다.
LA 0020			회화/작문/독해
LA 0021			철자법/맞춤법
LA 0100		언어학	
LA 0110			비교언어
LA 0120			사회언어
LA 0130			심리언어/병리언어 언어심리, 언어장애치료 등을 포함한다.

※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언어는 분야 코드 LA 다음에 지역 공통 코드를 부가하시오.

〈표 2〉 어학 분야(LA) 분류표(계속)

코드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LA 0140	※어학	언어학	인지언어		
LA 0150			전산언어/수리언어		
LA 0160			대조언어		
LA 0170			인류언어		
LA 0180			역사언어/통시언어		
LA 0190			교육언어		
LA 1000 - LA 5900			※각 지역이나 국가의 언어		
LA 1000			동양어/아시아어		
LA 1101			서양어/유럽어	한국어/한글	
LA 1102				북한어	
LA 1103				중국어	
LA 1105				일본어	
LA 2000				러시아어	
LA 2101				독일어	
LA 2202				불어/프랑스어	
LA 2209				스페인어	
LA 2315				영국어/영어	
LA 2411				아프리카어	
LA 3000					
LA 4000	북남미어				
LA 4102	오세아니아어	미국어			
LA 5000					
LA 8100					
LA 8200	라틴어				
LA 9000	기타 어학	희랍어			

※ 특정지역이나 국가의 언어는 분야 코드 LA 다음에 지역 보조표의 해당 코드를 부가하시오.

#### 4.2 보조표의 종류와 내용

보조표는 각 학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시대 보조표와 지역 보조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시대 보조표는 역사학의 연대기와 각종 문헌분류표를 참조하여 모든 지역이나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지역 보조표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주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리 정보원과 UN의 Demographic Yearbook(1999)과 Statistical Yearbook(1997), 각종 문헌분류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시대 보조표와 지역 보조표는 분야코드와 별개로 필요한 경우에 사

〈표 3〉 시대 보조표

코드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000	원시시대		
1100		B. C. 4000년까지	
1200		B. C. 3999년 - B. C. 1000년	
1300		B. C. 999년 - B. C. 1세기	
1310			B. C. 9세기
1320			B. C. 8세기
1330			B. C. 7세기
1340			B. C. 6세기
1350			B. C. 5세기
1360			B. C. 4세기
1370			B. C. 3세기
1380			B. C. 2세기
1390			B. C. 1세기
1390-2300			원삼국시대
1390-3100			백제시대/고구려시대/신라시대
2000	고대/1세기-5세기/1-499		
2100		1세기-2세기	
2200		3세기	
2300		4세기	
2300-3100		삼국시대	
2400		5세기	
3000	중세/6세기-15세기/500-1499		
3100		6세기/7세기/500-699	
3100-3400		통일신라시대	
3200		8세기/700-799	
3300		9세기/800-899	
3400		10세기/900-999	
3400-3800		고려시대	
3500		11세기/1000-1099	
3600		12세기/1100-1199	
3700		13세기/1200-1299	
3800		14세기/1300-1399	
3800-4100		르네상스시대	
3800-4200		조선전기	
3900		15세기/1400-1499	



〈표 3〉 시대 보조표(계속)

코드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000	근세/16세기-19세기/1500-1899		
4100		16세기/1500-1599	
4200		17세기/1600-1699	
4200-4400		조선중기	
4300		18세기/1700-1799	
4400		19세기/1800-1899	
4400-5100		조선후기/개화기	
5000	20세기/1900-1999		
5100		20세기초/1900-1919	
5100-5400		일제시대	
5200		1920-1929	
5300		1930-1939	
5400		1940-1949/세계 제 2차 대전/해방	
5500		1950-1959/전후시대	
5600		1960-1969	
5700		1970-1979	
5800		1980-1989	
5900		1990-1999	
6000	21세기/2000-2099/현대		
6100		21세기초/2000-2019	
6200		2020-2029	
6300		2030-2039	
6400		2040-2049	
6500		2050-2059	
6600		2060-2069	
6700		2070-2079	
6800		2080-2089	
6900		2090-2099	
9000	기타 시대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은 시대 보조표 이고 〈표 4〉는 지역 보조표의 일부분으로 중분 류 항목과 대표적인 소분류 항목을 수록하였다.

지역 보조표의 코드는 각 주제 아래 특정 지역 이나 국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분야 를 대표하는 알파벳 문자에 해당하는 지역 코

〈표 4〉 지역 보조표

코드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000	아시아/동양	동아시아	남한/한국 북한 중국 일본	
1100				
1101				
1102				
1103				
1105				
1200	아시아/동양	서아시아		
1300		동남아시아		
1400		중앙아시아/중남아시아		
1900		기타 아시아		
2000	유럽/서양	동유럽	러시아	
2100				
2101				
2200		서유럽	독일 프랑스	
2202				
2209		남유럽	스페인	
2300				
2315				
2400		북유럽	영국	
2412				
2900		아프리카	기타 유럽	
3000				
3100			동아프리카	
3200	서아프리카			
3300	중앙아프리카			
3400	남아프리카			
3500	북아프리카			
3900	기타 아프리카			
4000	아메리카/북남미	북아메리카/북미	미국	
4100				
4102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남미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연안국 기타 아메리카		
4200				
4300				
4400				
4900				
5000	오세아니아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폴리네시아		
5100				
5200				
5300				
5400				
5900	기타 오세아니아			

〈표 4〉 지역 보조표(계속)

코드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6000	양극지방/극권/외계		
6100		북극지방	
6200		남극지방	
6300		외계지역	
7000	지방/해양		
7100		한대지방	
7200		온대지방	
7300		열대지방	
7400		산악지방	
7500		사막지방	
7600		해양	
9000	기타 지역		

드를 부여하면 된다. 예를 들면 동양어의 경우, 어학에 해당하는 LA에 동양에 해당하는 지역 코드인 1000을 결합시켜 LA 1000을 쓰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내용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분류표의 부피를 줄였다.

### 4.3 상관색인

학문분류표의 핵심을 지나면서 본표의 사용에 있어 접근 도구 역할을 하는 상관색인을 〈표 5〉와 같이 만들었다. 이는 학문분류 개념을 가나다순이나 알파벳순으로 단순히 배열하는 일반적인 색인이 아닌 본표와 보조표에 나오는 용어를 가나다순이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면서 관련 학문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학문분류표의 전체 구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 주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다양한 관점이나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주제, 혹은

너무 많은 세부 분야를 갖는 주제를 연구할 경우, 본표를 일일이 읽어가면서 해당 번호를 찾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 상관색인이 연구자들을 올바른 연구 분야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상관색인은 본표의 연구 분야명과 시대 보조표, 지역 보조표의 용어들을 색인하여 가나다순 배열하였다.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본표에 흩어져 있는 상호 관련된 연구 주제를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표 5〉의 상관색인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과 관련된 연구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 주제가 본표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그러한 이유로 “가족”의 다양한 측면을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상관색인이 “가족” 아래에 관련된 연구 분야명들을 함께 묶어주고 있으므로 연구 주제의 여러 측면을 한눈에 참조할 수 있다. 상관색인은 최소한의 공간에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관색인의 각 페이지는 두 칼럼으로 나

〈표 5〉 상관색인

가		가정복지	
		가정복지	SSW 0300
		가정상담	NH 0140
		가정생활	NH 0110
		가정의학	MCF 0000
		가정자원관리	NH 0120
		가정정신의학	MCY 0150
		가정학	NH 0100
가계	SE 0200	가족	
가계경제	NH 0160	가족간호	MNS 0600
가곡	RM 0620	가족건강	
가공제합성	TT 0700	(가정의학)	MCF 0200
가구공예	RF 2110	(생활과학)	NH 0150
가구디자인	RF 2430	가족경영	NH 0120
가극	RM 0610	가족경제	SE 0710
가금사양	AA 0210	가족관계	NH 0130
가금영양	AA 0210	가족관리	MCF 0200
가나		가족법	SL 0411
(지역코드)	[3201]	가족보건	
(지역학)	SR 3210	(생활과학)	NH 0150
가면극	LI 0017	(예방의학)	MBH 1000
가봉		가족복지	SSW 0300
(지역코드)	[3301]	가족사회학	SS 0500
(지역학)	SR 3301	가족상담	
가사(歌辭)	LI 0004	(가정의학)	MCF 0210
가상교육	SED 0908	(사회복지학)	SSW 0300
가상현실	TC 0510	가족심리	SPC 1400
가설검정	NS 0150	가족여성	SF 0200
가속기물리	NP 0230	가족예방의학	MCF 0400
가스공학	TR 0400	가족자원경영	NH 0120
가요		가족체계의학	MCF 0200
(문학)	LI 0017	가족치료	
(음악)	RM 0400	(가정의학)	MCF 0200
가이아나		(사회복지학)	SSW 0300
(지역코드)	[4201]	(생활과학)	NH 0150
(지역학)	SR 4201	(정신과학)	MCY 0330
가정		가족학	NH 0100
가정간호	MNS 0600	가족환경	NH 0110
가정경제	NH 0160	.....	
가정관리학	NH 0000		
가정교육	SED 0978		

누어 각 항목은 연구 분야명과 이에 대응하는 학문분류기호로 구성하였다. 영어는 약어로 통용되는 경우, 약어를 한 단어처럼 붙여 썼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약어는 풀어서 원괄호 안에 제공하였다. 또한 동음이의어를 구별하기 위해 한정어를 원괄호 안에 첨가하였다. 그리고 인쇄상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다른 용어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연구분야간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많은 정보가 주어져 있는 상관색인의 경우, 폭넓은 범위와 다양한 측면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보다 망라적인 색인의 작성은 더욱 더 많은 접근점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다루어진 학문 분류에 대한 더 많은 정보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므로 상관색인의 이용자인 학술 연구자들의 관심과 정보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십진분류법의 상관색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검색요어집과 학문분류표의 상관색인어를 비교하였다.

Lancaster(1998)는 연구자들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망라적 색인은 실제로 불가능하며 미래의 모든 요청들을 색인 작성 시에 미리 다 알 수 없으므로 최상의 색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관색인들의 할당 및 배열은 절대적으로 옳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본 상관색인의 질은 전적으로 연구자들의 실제 사용으로 평가받고 학문분류표의 개정을 통해 계속 보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4.3.1 색인어 선정

상관색인은 원칙적으로 본표와 보조표의 분류항목과 포함주의 내용을 모두 색인어로 선정

하였다. 단 시대 보조표에서는 중요한 역사시대(예: 조선시대, 르네상스시대, 개화기 등)만을 색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색인어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과(와)'나 '및' 등을 사용하여 2개의 독립된 단어를 연결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들을 각각 독립된 색인어로 취급하였다.

#### 4.3.2 기술 형식

상관색인은 색인어 다음에 해당 주제의 코드번호를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가스공학 TR 0400"과 같다. 지역 보조표나 시대 보조표의 색인어는 각각 각괄호(( ))와 따옴표(" ")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은 [1101], 삼국시대는 "2300-3100"로 해당하는 기호들과 함께 색인하였다. 도치항목은 사용하지 않고 한정어를 원괄호에 묶어 부기하거나 직접적인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색인어의 경우, 원괄호 안에 학문 세부분야명을 한글로 기술해 주고 그 한정어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이러한 한정어는 색인어가 동형이의어이거나 다의어인 경우, 일차적으로 색인어들간의 식별을 가능하게 해 주는 요소이며 동일한 어형을 가진 색인어들간의 개념을 구분해 주고 색인어가 표현하는 주제의 부차적인 접근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용이하게 읽을 수 있는 위치인 색인어의 바로 옆에 한정어를 놓았다. 그리고 색인어가 한번 출현하더라도 다의성이 있는 경우, 동음이의어가 색인어로 사용되지 않아도 색인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색인어 다음에 필요한 경우, 한자, 영어, 학문 분야명 등을 넣어 구별할 수 있도록 기입하여 색인어의 의미 구별 및 의미 전달의 역할

을 보완해 주었다. 색인어에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한자로 대응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한자로, 외래어 부분은 영어로 표기하고 색인어 전체가 외래어인 경우에는 그 원어를 제시하였다. 동음이의어로 된 색인어의 한정어가 학문의 대분류가 같은 경우에는, 중분류 이하의 세부 학문 분야로 한정어를 세분하였다.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요어는 문교부(1987)의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하였으며 외래어의 한글표기법도 문교부(1987)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랐다. 영문 약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 원괄호 안에 풀어서 원어 부기를 하고 국문 색인 뒤에 두었다.

다양한 학문분야와 관련된 색인어의 각 항목은 들어 쓰기로 작성하였다. 색인에서 동일한 항목의 다양한 주제적 접근으로 인해 들어 씌으로써 그룹화하는 것은 그룹 안의 학문코드가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기 위해 필요한 주제의 경우, 예외를 허용하였다.

#### 4.3.3 배열

숫자가 포함된 색인어의 경우, 숫자를 제외한 문자열만 가지고 일차적으로 배열한 후, 동일한 문자열의 경우, 숫자의 순서에 의해 색인어를 배열하였고 색인어의 배열은 각각 배열을 취했다. 색인어를 일률적으로 가나다순 배열형 색인어를 순서에 따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일렬 배열로 하기보다는 전체 색인어의 체계 안에서 그와 관련 있는 다학문적 주제에 있어서 기본 색인어에 떨어져 상하 배열하였다. 상하배열의 경우, 다른 용어들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색인 내에서 용어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여

기서는 색인어의 다양한 학문적 측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상하 배열하였다. 상하배열에서는 같은 층위의 색인어들 사이에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찾도록 하였다. 본표와 보조표의 분류항목, 포함주의 용어 등 전 주제어를 한글은 자모순 배열, 영어는 알파벳순 배열을 원칙으로 자순배열(letter by letter)로 하였으며 공백, 구두점, 특수기호 등은 배열에서 무시하였다. '로마자+한글' 형태의 색인어는 로마자로 보고 로마자 배열 위치에 배열하고 '한글+로마자' 형태의 색인어는 한글로 보아 자모순 배열에 위치시켰다. 한자의 경우, 우리나라 발음에 따라 배열하고 발음이 같은 경우 한자 획순으로 배열하였다.

#### 4.3.4 띄어쓰기

색인어의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에서 단어별 붙여쓰기도 허용하였기에 배열에서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 아예 붙여썼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의미의 혼란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이용자가 해당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이니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붙여쓰으로써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만 띄어쓰기를 하였고 배열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4.4 사용법

학문분류표는 본표, 시대 보조표와 지역 보조표, 상관색인을 사용하여 연구과제를 표시할 수 있다. 분류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과제 코드를 연구자 본인이 부여하도록 하였고 시대 보조표의 시대 코드와 지역 보조표의 지역 코드를 포함하여 최대한 6개의 코드를 줄 수 있

도록 하였는데 이는 학문분류표가 서기분류를 위해 고안된 분류표가 아니란 점에 기인한다. 즉 연구주제에 관한 다면적 측면을 해당하는 분류코드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한 학문분류표이기 때문이다. 학문분류표의 사용은 학문분류표 본표에서 직접 접근하는 방식과 상관색인을 통해 학문분류표의 본표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본표에서 직접 접근하는 방식은 분류표의 체계를 빨리 익숙하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음 분류표를 사용하는 연구자에게는 너무 생소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일단 상관색인에서 해당하는 연구 주제를 찾아보고 연구 코드를 찾아 해당하는 본표로 가서 해당 분류 코드의 계층적 관계를 파악한 후, 부여하도록 하였다.

학문분류표의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분류표의 상관색인에서 해당하는 분야 코드를 찾는다. 해당하는 연구 분야와 관련된 용어로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각 분류 코드를 본표에서 찾아본다. 그리고 본표의 계층관계를 바탕으로 적합한 연구 분야를 4순위까지 선택한다. 해당 연구 분야가 없는 경우, 상관색인에서 찾아본 색인어의 범주를 넓히거나 좁혀보도록 하고, 그래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관색인에서 8개의 영역 중에서 해당하는 영역을 찾아 본표로 간다. 거기서 해당 분야의 기타 코드를 부여하고 옆에 원괄호를 하고 분야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예를 들면, 에스파렌토어 연구라는 주제의 코드를 부여하려면, 에스파렌토어는 상관색인에서 찾아보아도 없으므로 큰 범주인 어학으로 접근한다. 상관색인에서 어학은 LA 0000으로 쓰여있고 본표에서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면, 기타 어학은 LA 9000이다. 그러므로 해당 코드인 LA 9000을 쓰고 옆에 원

괄호를 열고 에스파렌토어를 쓴 후, 원괄호를 닫는다. 즉 이 연구에 해당하는 분야 코드가 LA 9000(에스파렌토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아진 기타 분류 항목들은 학문분류표 개정시 새로운 항목 설정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둘째, 분야 코드를 준 후에는 시대나 지역에 관한 주제인 경우, 보조표를 사용하여 주제를 더 전개 한다. 역사적인 측면을 다루는 주제로 시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때, 시대 보조표에서 해당하는 시대 코드를 따옴표와 함께 부여한다. 2개 이상의 연대에 걸쳐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 시작 연대 코드와 끝나는 연대 코드를 -로 연결하여 따옴표 안에 써 준다.

〈표 3〉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개화기는 “4400-5100”, 일제시대는 “5100-5400”으로 쓴다. 특정 연도는 해당 연도가 포함된 연대의 코드를 주고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같이 국가에 따른 시대 구분은 시작 연대 코드와 끝나는 연대 코드를 -로 연결하여 따옴표 안에 써준다. 예를 들면 2002년은 “6100”, 통일신라시대는 “3100-3400”으로 쓴다. 그러나 특정 시대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역사를 다루는 경우에는 역사를 다루는 분류 항목의 코드를 본표에서 주고 시대 코드는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셋째, 주제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경우, 분야별 지역에 해당하는 코드를 각괄호와 함께 사용한다. 하지만 이미 분야 코드에서 지역 보조표에 해당하는 번호를 가져온 경우에는 반복하여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이란 지역에 한정된 주제라면 [1101]로 표시 하지만, 한국어에 관한 연구 주제는 LA 1101이란 분야 코드가 이미 지역 보조표로부터 1101을 가져왔으므로 지역 보조 코드는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지역이나

국가를 다루는 경우, 해당 지역 코드를 십표로 각각 구분하여 각괄호 안에 써 준다. 예를 들면 남한과 대만은 {1101, 1104}, 남북한, 일본, 미국은 {1101, 1102, 1105, 4102}로 표시한다.

#### 4.5 적합성 평가 및 적용

주제별 전문가들의 분류표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주제의 경우 형평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서로 다르게 묶여지는 것이 나올 것 같은 주제가 있다는 점, 셋째, 학문에 따라 세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 코드나 시대 코드가 더욱 상세하게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세분야가 설정이 안된 경우, 각 영역에 추가하면서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다섯째,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 규정이 선행되어 분류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여섯째, 연구재단의 분류표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점, 일곱째, 복합적이고 학제적 연구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세분화의 필요성에 의미 부여가 어렵다는 점, 여덟째, 역사나 연구활동에 비해 소홀히 취급한 분야가 있다는 점, 아홉째, 급성장하는 분야임을 고려하여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 열번째, 학회가 성립된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학문분야를 나누고 학회에서 사용하는 분류표의 항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의견은 학문분류표를 수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해당 학문을 분류함에 있어 자신들의 연구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분류항목의 설정이나 상향을 원했다. 실제로 모든 평가자들이 해당 학문 분류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인정하였고 학문별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재설정된 학문분류표를 실제로 적용해 보기 위해 1998년도 학술연구조성비 연구과제 목록집에 실린 과제명을 바탕으로 분야 코드를 부여해 보았다. <표 6>은 다양한 분야의 각 연구과제 분야 코드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표 6>에서 보듯이 시대 보조표나 지역 보조표를 사용해야 하는 주제는 적었다. 그러나 특정 학문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오히려 구분의 상세성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시대 보조표나 지역 보조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었다.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는 독립된 항목을 설정해 주지 않아 어학의 기타 범주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독서교육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로 교육학, 문헌정보학, 심리학과도 연관된다. 그러나 다른 학문 분야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연구 수행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고, 다만 학제적 연구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학문 영역 코드가 다른 분야를 표시하는 경우,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제간 연구를 도모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남한의 중부지역의 지진활동에 관한 연구나 전북과 충남의 방언 연구는 보다 더 주제를 상세히 표현하자면 한국이란 지역 구분을 보다 더 자세히 각 지역별로 코드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지나친 세분화는 최적 평가자의 선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연구 주제가 매우 전문적인 경우, 소분류로 가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기가 없기 때문에 분야 코드를 부여하는데 주관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 있어서 주를 주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연구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학문분류표를 바탕으로 분야 코드를 주는데 있어서 가



〈표 6〉 연구과제명과 해당 코드

연구과제명	분야 코드	시대 코드	지역 코드
인공위성영상을 이용한 한반도 생물계절 유형에 따른 식생분류	AFI 1210 NA 1500 NB 4200 NB 4330 NB 4340		(1101)
한국 수화언어에서의 단어형성 과정	LA 0003 LA 0005 LA 0012 LA 9000(수화)		(1101)
북한의 전통음악 전승에 관한 연구	RM 0003 RM 0009 RM 0400		(1102)
고려시대 구결한자음의 연구	LA 0002 LA 0013 LA 1101	"3400-3800"	
초등학교 미술과 교과서 비교 연구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RM 0007 SED 0912 SED 0981		(1101) (1105) (4102)
조선조 혼천시계 연구	HH 0011 HH 1101 T 0009	"3800-5100"	
표준 발음이 수록된 초등학교용 전자사전 모형 개발	LA 0001 LA 0016 LA 0150 LA 1101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LA 0007 LA 1101 LA 9000(독서) SED 0971 SLI 0320		
전북 방언과 충남 방언 연구	LA 0015 LA 1101		
자성반도체와 그 양자구조의 미시적 성질 연구	NP 0130 NP 0490 NP 0820 TE 0520 TEL 0100 TEL 0820		

〈표 6〉 연구과제명과 해당 코드(계속)

연구과제명	분야 코드	시대 코드	지역 코드
14세기 국어의 사상과 서법	LA 0009 LA 0180 LA 1101	"3800"	
일본정치의 우익현상과 대외경제정책	SE 0005 SP 1105 SPP 0440		[1105]
남한 중부지역의 지진활동, 지각 특성 및 응력장 연구	NES 0210 NES 0220		[1101]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SPA 0210 SPP 0006 SPP 0010		[1101, 1104]
17, 18세기 불문법에 나타난 동사의 법과 시제	LA 0009 LA 0020 LA 0180 LA 2209	"4200-4300"	
월드 와이드 웹의 활용을 통한 대학 교양 영어 교 수 학습 모형 개발	LA 0007 LA 0008 LA 0190 LA 2411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독해 및 작문 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활용 방안	LA 0008 LA 0020 LA 0190 LA 2411		[1101]
고체 절연재료에서 공간 전하가 부분방전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NC 0240 NP 0400 TE 0700 TM 0400		
이동무선전화에서 음질향상을 위한 종합 능동 음 향 제어	NP 1100 TEL 0510 TM 1100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어 교과서 어휘 연구	LA 0003 LA 0007 LA 0012 LA 1105	"5100-5400"	

장 곤란하였던 점은 적합한 항목이 없는 경우, 주관적 견해에 바탕을 두고 코드를 부여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으로 분야별 전문 용어

와 그 개념이 정착을 하면 보다 정확한 상하위 및 동위 관계의 설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분야 코드를 6개 이상 부여할 수 있

는 연구주제도 있었으나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6개까지만 순차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연구자의 우선적인 연구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6개까지 표현된 연구 주제를 단 하나의 완벽한 코드로 표현할 수 있다면 최상의 분류표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표 6>에서 보듯이 연구 코드를 우선 알파벳순으로 나열하고 시대 코드나 지역 코드를 합성함으로써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결론 및 제언

학문은 학문 체계와 더불어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이며 이런 점에서 항상 그 시대의 지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학문 자체에는 무관한 역사적 사실이 학문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시대에 따라 특정 영역이 중시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문 영역은 학자들의 연구 성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형성되는데 그것은 연구과제를 체계적인 계통에 따라 설명하고 여기서 축적된 인지요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연구성과를 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문 체계는 많은 부분을 서양 학문에 의존하였다. 서양 학문이 우리 학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서양의 이론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의 추세를 쫓아가며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 세계 속의 우리 학문을 발전시키고 우리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보다 기본적인 성격의 작업이 필요하다. 즉 스스로 하고 있는 연구 주제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처럼 학문 분야간의 경계가 변화하고 모호해져 가는 상황에서 하나로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적 지식구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학문과 문헌이 어떻게 분류되어왔고 이 둘의 상이성과 연관성은 무엇인지, 연구분류표로의 발전과 활용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문 분류표를 설계하였고 그 분류표를 사용하여 실제로 연구과제명을 바탕으로 연구 분야 코드를 부여해 보았으며, 보다 효율적인 학문분류표의 개발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문의 체계와 구분에 대한 학문분류표는 문헌분류표의 실용성과 이론성의 토대이며 연구의 소재를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현대의 학문분류표는 철학적 의미보다는 연구 개발의 지원, 측정 및 분석에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새롭게 재설정된 학문분류표는 본표와 보조표, 상관색인으로 구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과제를 표시한다. 상관색인에서 관련 분야 코드를 모두 찾아 중요도에 따라 4순위까지 기록하며, 특정 시대나 특정 지역에 관한 주제인 경우, 해당 보조표에서 코드를 추가로 부여한다. 연구과제명을 바탕으로 분류해 보았더니 항목 설정이 안 된 경우,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관련 분야를 선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점, 주제가 학제적 연구라 해도 다른 분야의 평가자들에게 평가를 받고자 다른 영역의 분류 코

드를 주는 것은 연구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전문 용어의 정착이 분류표의 항목 설정 및 개발에 필수적이란 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문분류표가 그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문분류표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경직된 분류표로는 새로운 연구활동을 담아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연구분야를 수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되어야 한다. 포함되지 않은 학문 영역은 새로 설정하고, 실제 연구 활동이 미진하면서도 독립된 학문 분야는 폐지 또는 특화 시켜야 한다. 새롭게 발생하는 분야도 표시할 수 있는 분류표로 개발하여 새로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의 융합이나 학제간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 분야를 표시할 수 있게 분류체계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 특히 국내의 모든 정부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관한 통일된 지식활동 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분류표가 이루어져 연구 사업의 골격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도 알 수가 있고 투입과 결과, 연구 활동의 전개나 영향까지 제공하여 정확한 연구 활동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연구활동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져야하며 그 기초 작업으로서 학문분류표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학문분류표의 개정작업은 필

수적이며 국제적으로도 연구 활동 및 연구 정책을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의 학문분류표와 연관성을 갖고 연구 개발 활동의 정의와 범위, 분류표의 항목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문분류연구회를 조성하고 각 주제별 분류 분과를 만들어 학문의 세분, 융화, 소멸 등으로 인한 변경을 수용할 수 있는 학문분류표를 유지해야 하며, 여기서 적합한 학문분류 항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삭제하고 변경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알려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각 주제별 분류 분과의 심의 및 자문과정을 통해 얻는 내용도 학문분류표 개정에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 특히 같은 어휘라도 학문에 따라 여러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분류항목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분류 항목을 위해 각 학회마다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보편성을 높이고 학문적인 전문성과 정보관리성을 바탕으로 한 적합한 표준 분류 항목의 구성은 각 학문분야의 학술 연구자들의 연구 편의를 도모하고 현실에 부응하는 발전적이고 실용적인 분류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전통적인 사고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학문분류를 시도하려는 학자들과 문헌이나 연구의 효율성을 높 이려는 분류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한 의사 교환이 이루어져, 현대 학문의 세분화와 그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분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새롭게 설정한 학문분류표를 사용하여 연구 과제와 연구자들을 분류할 수 있으며 모든 학술 연구와 연구자들에 관한 정보를 조직할 수 있다. 특히 학문분류를 통해 특정 연구자의 전문 영역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연구 지원에

필요한 각종 통계 자료와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어서 학술지원평가의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보조직의 틀을 제공하는 문헌분류표의 기초를 제공하고 학술정보조직의 효율성을 가져와 국가연구정보력을 증대시켜줄 것이다. 학문의 세분화와 그 발전상을 보여주며 학

술정보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 설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학문분류표는 국가의 연구지원 표준코드로 발전시켜 국가 전체의 연구 개발 활동과 학술 활동을 범주화하고 효율적인 학술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태수. 2000.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 문교부. 1987. 『한글맞춤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배영환. 1986. 학문분류의 발달과정과 문헌분류에 끼친 영향. 『도서관』, 41(2): 25-36.
- 소광희 외. 1994. 『현대의 학문체계』. 서울: 민음사.
- 오기평 외. 1993. 『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II. 사회과학』. 서울: 학문사.
- 이삼열 외. 1993. 『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I. 인문과학』. 서울: 학문사.
- 장상호. 1997. 『학문과 교육: 학문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연경. 1999. 학문분류, 문헌분류, 연구분류에 관한 비교 분석. 『사회과학논총』, 3: 175-196.
- 최정태, 양재한, 도대현. 1998. 『문헌분류의 이론과 실제』.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한국교육개발원 편. 『교육통계연보』. 1998. 서울: 교육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편. 『국공립대학 교원명부』. 1996. 서울: 동 협의회.
- . 『사립대학 교원명부』. 1996. 서울: 동 협의회.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저. 『한국십진분류법』. 1996.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편. 『학회총람』. 1999. 서울: 동 연합회.
- Academy of Finland. 1999. Field of Research Classification [online]. [cited 1999. 7. 9] <<http://www.aka.fi/eng/guide.html>>.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1999. DEET Field of Research Classification [online]. [cited 1999.7.9]. <<http://www.macarthur.uws.edu.au/research/codes/forcode1.html>>.
- Bhattacharya, Ganesh and Ranganathan, S. R. 1974. "From Knowledge Classification to Library Classification," in *Conceptual Basis of the Classification Knowledge*. Muchen: Verlag Dokumentation: 119-143.
- 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9. Fields of Science [online]. [cited 1999. 7. 9]. <[http://www.psc.edu/grants/application/fields\\_of\\_sci.html](http://www.psc.edu/grants/application/fields_of_sci.html)>.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1996. Chicago:

- OCLC Forest Press.
- Higher Education Research. 1999. Classification Codes [online]. [cited 1999. 7. 9]. <<http://www.dectya.gov.au/highered/research/codes/anzic.htm>>.
- Japanese Universities: Graduate Programs for Foreign Students*. 1996. Tokyo: Cultural Association of Asian students.
- Korea Research Foundation. 1999. Field of Research Classification [online]. [cited 1999. 9. 1]. <[http://www.krf.or.kr/act/연구/hak\\_inf.htm](http://www.krf.or.kr/act/연구/hak_inf.htm)>.
- Korea Science Foundation. 1999. Field of Science [online]. [cited 1999. 10. 24]. <[http://www.kosef.re.ke/mandoc/new\\_fields.htm](http://www.kosef.re.ke/mandoc/new_fields.htm)>.
- Lancaster, F. W. 1998. *Indexing and Abstracting in Theory and Practice*. 2nd ed. Littleton, CO: Libraries Unlimited.
- Miksa, Francis L. 1994. "Classification." in *Encyclopedia of Library History*. Edited by W. A. Wiegand and D. G. Davis, Jr., pp. 145-53. New York: Garland.
-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nline]. [cited 1999. 7. 9]. <<http://www4.nationalacademics.org>>.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99. Field of Science [online]. [cited 1999. 10. 21]. <<http://www.osu.edu/fos.html>>.
- Peterson'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 S. A.* 1997. New York: Peterson.
- Satija, M. P. 1998. "Classification: Some Fundamentals, Some Myths, Some Realities." *Knowledge Organization*, 25(1): 32-35.
- School Basic Survey*. 1997. Tokyo: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 Svenonius, Elaine. 1992. "Ranganathan and Classification Science." *Libri*, 42(3): 176-177.
- United Nations. 1999. Demographic Yearbook 1997. New York: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 . 1997. Statistical Yearbook. New York: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